

現代 韓國小說의 「性格」에 관한 小考

—그 變移過程에 관하여—

朴 東 奎*

序 論

小說의 「性格」에 대한 규명은 반드시 小說의 全體的 構造에 대한 總體적 成分으로서 性格이 그 가치를 가진다는 전제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격」이 소설에 하나의 장식적 요인을 가진다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 小說의 核心的 內容을 풀어주는 열쇠로서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천착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지고 말 것은 분명하다.

본고는 이러한 「性格」의 比重을 생각하면서 小說上의 性格의 變化가 어떻게 소설구조에 기인하고 다시 이것이 한국 소설의 발달 내지 변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극히 초보적 관심에서 일종의 문제제기의 의미로서 그 관심의 폭을 설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개개의 「성격」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이 論述속에서는 소설연구의 새로운 時代的 對比方法의 假說을 설정시켜 보려는 목적도 있지만 워낙 준비되어진 부분을 활용할 수 없는 개인적 사정이기에 그런대로 하나의 假說만을 유도코자 한다.

1. 「性格」의 決定要因

실제로 韓國小說의 發展過程을 살펴볼 때, 우리는 小說史의 變遷의 軸으

* 人文大 助教授(國文學 專攻)

로서 小說外的인 思想史나 社會變動史와의 關係에 빈번히 의논하면서, 小說의 思想的 色彩나 技巧의 特殊性을 규명하며 小說의 內的 流動性을 定立하려는 경향이 짙었던 것이 사실이다.¹⁾

이러한 경향은 本質的으로 문학내의 小說의 位置를 점검해보고, 나아가 小說이 지닌 藝術史的 意義를 確認해보는 것에는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小說 個個의 作品內的 世界, 잠겨있는 小說內的 世界的 原形에 대한 변형이나 변질에 의한 小說의 發展은 도외시 당하고만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小說의 基本的 性格의 變形에 관한 몇가지 事實은 空間的 次元에 있어서의 狀況의 小說理論으로 定立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時間的 次元에 있어서의 時代的 性格의 격차를 나타내는 하나의 간헐적 층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되기도 한다.²⁾ 예를 들어 아주 간명하고 상식적인 例證이지만 古代小說이 지닌 前편일률적인 성격유형과 近代小說이 지닌 個體의 人間型的 성격유형의 상관 위에서 볼 때 性格類型의 變移 自體가 하나의 法則性을 지닐 수 있고 이 法則性으로 하여 古代와 近代의 小說의 區分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方法論에 있어서의 小說內的 世界에 대한 焦點의 集中은 몇가지 문제에 있어 價値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開化期文學以後 近代의 文學으로의 移行과 짧은 近代의 文學期를 거쳐 現代文學期로의 定着過程의 對比에서 小說分野에 있어서의 이러한 小說內

1) 종래의 小說史에 관한 研究가 대체로 이러한 性格을 띠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文藝思潮나 혹은 時代的 狀況이나 作家의 主題의 展開에 집착한 小說史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文學과 知性」(1971, 겨울, p. 761)에 金柱演의 「文學史와 文學批評」의 결론이 온당한 예가 될 것이다. 즉 「〈近代〉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는 時代區分論을 통해서 제기된다면 文體나 樣式의 變異를 발견해 내고 그 集合에서 한국문학의 숙명을 규정할 이념과 그 이념의 개선을 가능케 하는 이론을 찾아낸다면 우리 시대의 평가는 끝나는 것이다」.

2) James L. Calderwood and Harold E. Toliver (1968) *Character*, David Daiches, Oxford University Press, p. 345.

데이비트·테이서스는 性格의 效用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의 論文 “The Novel and Modern World”(1960)에서 性格의 分명한 해명을 통하여 小說史의 立場은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

的 世界의 探索은 각각의 時代의 性格과 그 影響 및 각각의 社會의 性格과의 水直과 水平의 座標的 接點을 기준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方法이 될 것이다.

따라서 小說內의 核心世界인 「性格」(character)의 變移過程은 가장 比重이 높은 小說의 構造樣式의 變移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헨리·제임스(Henry James)가 말하였듯이 「성격이란 事件을 決定하는 主體이며, 事件은 性格을 明證하는 것이다」³⁾. 이 말의 본뜻은 실로 小說의 性格이 단순히 人間의 特性(characteristic)을 說明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의 小說內의 生涯의 性格을 意味한다는 점에 주된 意味를 지니고 있다. 브룩스(Brooks)나 워렌(Warren)의 고정적 성격(static character)과 발전적 성격(developing character)의 機能的 分析 分類方法이 細分化된 樣式性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성격의 機能的 側面만을 강조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理論의 결합을 감안할 때 ① 문자화되어질 수 있는 모든 측면의 人間像을 부각하고 ② 스토리 라인 위에 올려질 수 있는 모든 人間像을 의미하는 性格化의 理論으로 細分化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격의 決定要因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성격의 形成에 나타나는 一般의 特性이 抽出되므로서 現代小說이 지닌 複合的 構造의 人間像을 구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성격의 決定要因에 대한 基礎樣式으로 맥코레이와 레닝(MacCauley and Lanning)은 다음과 같은 9가지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1. physical appearance
 2. movements, gestures, mannerisms, habits.
 3. behavior toward others
 4. speech
 5. attitude toward self
 6. attitude of others toward the character
 7. physical surroundings
 8. past
 9. fringe technique such as names and figures of speech
- (cf. Maccauley, Robie & Lanning, George, Technique in Fiction, p. 63)⁴⁾

3) Henry James "Future of the Fiction" p. 13.

4) MacCauley, Robie & Lanning George (1970) Technique in Fiction, p. 63.

이러한 性格化의 基礎的 要因들이 단순히 그것 개개의 독특한 性能에 의한 性格形成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허버드·리이드(Herbert Read)의 말과 같이

문학에 나타나는 浪漫的 要素와 古典的 要素는 人間性的 生物學的 對立에서 나오는 必然的 表現이니 어느 것이 眞實하고 어느 것이 虛僞라고 斷定할 수 없다. 眞實은 그들중에 다 있다. 眞實의 虛僞는 決코 心理型 그 自體엔 있지 않다. 따라서 批評家는 自己의 批評根據로서 個人의 先天的 心理型 以上の 科學的이고 普遍的 標準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批評原論이다⁵⁾.

최재서의 批評方法에 있어서의 相對的 要因의 合一的 原則性을 性格構造의 基礎要因에 대한 評價에 그대로 적용시켜 볼 때 性格化의 基礎要因은 個別的 特性에 依存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떠한 科學的 原則性위에 놓여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알랭과 포스터가 소설과 同質의 논리·질서·역사성을 강조할 때,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프루스트, 조이스, 버어지니아 울프, 알프레드 되블린)은 우선 소설 인물에 관해서 이러한 소설 장르의 안심시키는 기능을 거부한다. 소설인물은 이제는 하나의 萬華鏡이외의 다른 것이 아닌 세상에서 방황하고, 불확실하고, 주저하며 놀라는 존재로서 제시될 때만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을 명료하게 해 주기는커녕, 반대로 소설과 소설의 인물들은 그들에게서 인습과 儀式과 속박, 한 마디로 말해서 공식적인 사회관계를 떼어 내자마자 원자들의 소용돌이와 흡사해 보이는 인간관계를 表現하게 될 것이다. 인간들은 불행하게도 하나의(비인간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인간은 다행하게도 하나의(진정한) 變轉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숙명적인 사회현실에 대하여 타인과 그리고 자아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구성되는 개인의 진실이 대립되어야 한다. 독자에게 질서와 理性의 안락함(그것이 죽음의 안락함일지라도)을 나타내줌으로써 독자를 위안하기는 커녕, 소설은

5) 최재서, 文學과 知性, 人文社, p. 31.

생존의 非窮極性을 表出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질서와 계급의 개념 자체가 무너져 버렸으며, 진정한 가치는 우리 思考의 움직임 속에만 존재하는 세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소설가들에게는 발자크나 톨스토이나 디킨즈에 의해 확립된 모델들을 이제 써먹을 수 없는 것들이다.⁶⁾

이와같은 새로운 小說樣式의 探索은 韓國小說에 있어 思想史的 側面이나 小說史的 側面에서 두드러진 變化를 形成·변천되고 있는 것이다.

2. 客觀的 「性格」→主觀的 「性格」

한국소설에 나타난 대표적 경우의 성격유형들은 대체로 그 性格類型이 墨西哥 教授의 學說에 依하면 基礎的 樣式에서 출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요섭에 있어서의 「추물」이나 현진건의 「B舍監과 러브 레터」에 있어서의 B舍監의 경우 용모의 미추라는 극히 단순한 외형적 근거를 통해서 성격을 만들고 있는 점과 혹은 50年代의 作家群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 즉 서기원의 「이 성숙한 밤의 포옹」에 있어서의 육정의 반복적 습벽에 의한 性格化라든가 송병수의 「소리·킴」에 나타나는 소년의 둘 던지는 버릇등, 일반적인 습벽이나 반복적 행위를 통해 성격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고 나도향의 「방원의 처」에 있어서 이지적 창부형이라든가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육회 엄마의 경우, 이 태준의 「밤길」에 있어서 할아버지 전 서방이라든가, 性格化의 方法에 있어서는 공통적 기반을, 위에 열거한 기초적 성격양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社會라든가 現實이라는 外皮의 對自我의 世界와 對應하는 自然主義的 傳統이나 리얼리즘과 表出樣式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樣式의 導入과 발전은 근대적인 合理主義나 心理主義的 科學性과도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화」의 方法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은 이들 성

6) 미성 제라파 李東烈譯, 「小說과 社會」, 1977, 文學과 知性社 p. 39-40.

격群이 한결같이 客觀的 妥當性에 얽매어 있다는 점이다. 이 客觀的 타당성은 現實에 대응되어진 혹은 個體에 대응되어진 客體的 確認의 樣式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典型性〉이라는 극히 客觀的인 樣式性이 그것이다. 金東仁의 경우 尹弘老教授의 評價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순된 혹은 腐敗된 環境的인 영향때문에 그 공간속에 存在하고 있는 善良했던 주인공들이 오염되어 病드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감자系列의 作中人物들은 不條理한 社會的 構造때문에 극도로 굶주림과 억눌림을 당하여 비참해진다. (中略) 둘째로 「狂炎소나타」系列의 작품중에서 주인공들은 사회무대에서 분열되어 소외의식을 갖게 되고, 그것은 더 높은 絕對世界에로의 指向을 追求하게 된다. (中略) 셋째로 「포폴리」系列의 주인공들의 죽음은 性本能을 초래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최서방」의 性的 성숙은 반도덕적 행위를 자행하게 된다. 본능적 성욕과 사회 도덕률과의 충돌은 최서방의 내적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中略) 넷째는 東仁의 초기작품 「마음이 열린 者에」系列의 主人公들은 육체와 영혼의 二元論的 乖離에서 육체적 좌절로 영혼의 승리를 시사한 것이다.⁷⁾

그의 金東仁의 小說에 나타난 「죽음」의 共質性에 대한 評價는 결국 「性格」의 個體的 特性에 根據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金東仁의 小說에 담겨진 가장 뚜렷한 「죽음」이라는 意味의 해석에 있어서 性格의 客觀的 典型性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얻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들의 典型性和 같은 客觀的 核體가 主觀的 現象의 등장으로 因해서 意識에 근거한 未分化的 性格의 출현으로 主觀的 性格類型으로 오늘날 변형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송영의 「先生과 皇太子」에 등장하는 〈나〉라는 인물, 순열은 개관적 성

7) cf. 拙稿, 戰後 韓國小說의 性格類型 研究, 서울대학교학부논문집 3권 1971, p. 45.

8) 김용직외 7명 共著, 한국현대작가연구, 민음사, 1977, pp. 86-87.

격의 보편성이나 전형성보다도, 그가 접하는 現實의 울타리보다도 오히려 그의 내재적 심경의 반응도가 그 性格을 형성하고 있는 점이다. 박태순의 「정든 땅 언덕위」에 나오는 나종애의 경우를 예하여 보면

「왜 춘향이가 저한테 무릎을 꿇어요?」

정의도의 얘기에 관한 한, 종애는 말싸움에서 지려고 들지 않는 것이었다. 아주 당돌하게도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면 어찌 시들해져서 서로 아무 말도 않게 되는 것이었고, 종애는 진짜 춘향이거나 한 것처럼 정의도를 그리워 하는 것이다.⁹⁾

정의도를 기다리는 나종애의 경우 그녀의 性格類型은 平面的 性格(flat character)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대립적인 관념성에서 보다는 오히려 주관적 성격 즉 작가의 인상적 스케취를 통한 비객관적 표현의 영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청춘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곽수진과 곰수들」, 「별을 보여 드립니다」 등에 나타나는 主人公들은 現實에 대응하는 자세나 인간관계의 특이한 상황에 매달려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내면에서 우리나라의 본질적 인간상이라는 것은 오히려 언어의 내면적 상징성이나 의식의 내부에 침잠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소리로서 채색되어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서정인의 「물결 높던 날」의 현수 역시 다방베지와외의 필연적 연관성보다도 <삶에는 잘 들어맞는 톱니바퀴가 없었다. 어디엔가 반드시 맞지않는 데가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고백처럼 내면적 세계의 자아의식이 발판이 되어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홍성원의 「주말여행」의 경우도 개잡이의 근거가 단순한 도회인의 일상성과 유기적 관계를 맺을 뿐 <나>라는 주인공은 결국 개잡이와는 상관없는 여인과의 관계위에 자신을 투영하게 되고 그 투영된 자기를 통해 내면 세계를 표출하므로써 성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나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여인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여인이 어이 없는

9) 박태순. 「정든 땅 언덕위」 민음사 1973 p. 21.

표정으로 나를 멍하니 바라본다. 그녀의 눈은 송아지의 그것처럼 크고 깊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내가 풀 죽은 표정으로 여인의 얼굴을 서서히 외면하자 여인이 곧 내게로 다가오며 목이라도 조르듯이 급히 물었다.

「웬일이세요? 왜 제가 무섭죠? 제가 뭐 잘못된 점이라도 있나요?」

「천만에, 자넨 아무 잘못두 없어. 자넨 너무 예쁜 게 탈일 뿐이야」

「선생님, 절 지금 놀리시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린애가 어떤 장난을 꾸미다가 들켰을 때와 흡사한 멍쩍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는 여인을 놀려주고 싶지 않았다. 놀려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나는 불과 몇시간 사이에 이 여인을 갑자기 사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¹⁰⁾

홍성원의 이러한 주인공들과 같이 오늘날의 젊은 작가들에게는 주관적 성격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그것은 성격차의 방법에 나타나는 커다란 방법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주관적 성격의 특징은 진실이나 사회나 역사나 인간관계를 「주된 인상」(dominant impression)에 의한 주관적 해석의 방법으로 성격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서 결과한 것이다.¹¹⁾

이러한 추세의 원칙성은 18세기 이후 미국소설의 변천과정에서 자연주의적 전통이 분화되어 20세기의 새로운 類型으로 변모되는 것과 흡사하다.

합리주의, 프래그마티즘등의 理性的 밀박침을 받았던 19세기 이후 2차대전까지 객관적 성격을 이루다가 전후부터 의식의 흐름 disillusioned character 類의 성격과 War Radical의 성격의 것으로 변모되어온 과정을 밝힌 에드가 교수의 지적과 동일한 현상을 우리 小說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¹²⁾

10) 홍성원, 주말여행, 문학과 지성사, 1976, p. 263.

11) John Halperin ed. (1974) *The Theory of the Novel*, Narrative distance, Tone and Character, Water Allen, Oxford University Press, p. 323.

12) Edgar, Art of the Novel, p. 126.

3. 日常性的의 內面化

한국소설의 성격변이과정의 분석을 통해 볼 때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은 일상성의 內面化라는 특이한 성격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전형성이라든가 인간의 창출에 초점을 두고 펼쳐지던 과학적 정신의 소설 유형에서 감각적 차원과 의식의 차원으로 빠져들어가서 일상성의 내포적 의미를 강력히 내보이면서 이 일상성을 어떤 의미단위를 거쳐 상징성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법의 등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대적 리얼리즘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설이 지닌 정확한 전통적 구조양식에서 볼 때는 객관성 즉 보편적 미적 구조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난제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